

문화

본관 앞 마당,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개체

본관놀이, 누구나 넹?

대표작성 : 황경선 기자
인포그래픽 : 방누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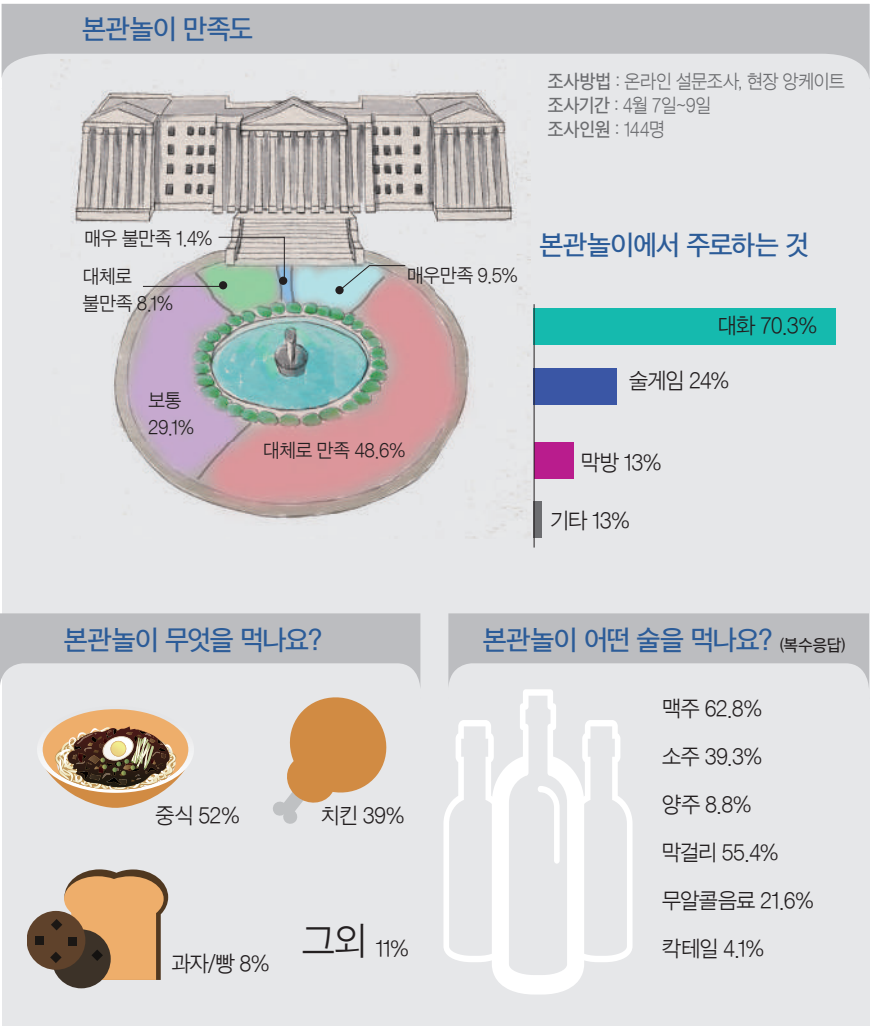
예년보다 쌀쌀한 4월이지만 ‘경희랜드’에는 어김없이 벚꽃이 만개했다. 매년 봄 개화시기 마다 본관 앞은 음식을 시켜먹고 사진을 찍는 등 ‘본관놀이’를 하는 학생들로 붐빈다. 할 일은 잠시 미뤄둔 채 저마다 본관 앞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즐기는 봄의 축제, 그 본관놀이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본관이 지어진 1958년 이후에 입학한 네 동문들의 이야기를 통해 본관놀이의 역사를 짚어봤다.

본관 앞 정원이 만들어 진 것은 1958년의 일이지만 이 당시부터 본관놀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무거웠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놀이 문화는 찾기 보기 힘들었다. 당시 본관 앞마당은 전교생이 모여 학원장님의 말씀을 새겨듣는 ‘월례 조화’의 장소였고, 부당한 사회를 향해 시위를 하며 경찰들과 대립하는 장소였으며, 때로는 학생 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학문의 장이었다. 50년 전의 본관은 지금과 다른 이유로 불렸던 것이다.

이랬던 본관 앞마당에 지금과 같은 본관놀이의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아직 ‘본관놀이’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친구들과끼리 둘러 앉아 짜장면을 먹었다는 점은 지금의 본관놀이와 유사했다. 날이 좋으면 너도나도 좋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려 애썼고 통기타를 치며 낭만을 즐겼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아름다운 캠퍼스의 경관이 학생들을 이끌었던 것이다. 우리대학을 졸업한 최재구(영문학 1979) 교수는 “본관은 대학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를 연결해주는 끈”이라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본관에서 비슷한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고 말했다.

본관 앞마당이 1970년대에 공적인 장소에서 학생들의 놀이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면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자유로운 대학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 됐다. 그곳은 만남의 장소이자 학생들의 쉼터였다. 자판기 커피 한잔으로도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기 충분한 장소였고, 미팅을 할 때에도 좋은 장소였다.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본관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자부심이 되었다. 80년대 당시 재학했던 정권현(무역학 1987)동문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만큼 재학시절 본관 앞마당이 주는 상징성이 컸다”며 “대학생활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만큼 많은 스토리가 담겨있어 좋다”고 말했다.



안전문제 우려 ... 관리팀, “위험한 행동 자제해 달라”

본관놀이의 ‘그림자’

대표작성 : 이진우 기자

마냥 행복하고 밝기만할 것 같은 ‘본관놀이’의 이면에도 그림자가 있다. 본관놀이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즐거운 본관놀이를 계속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본관놀이의 어두운 면 중 대표적인 것은 역시 ‘쓰레기’다. 본관놀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매년 제기돼 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한껏 상기된 함성이 울리는 본관 주변을 둘러보면 날리는 전단지, 포장 비닐, 음식물 등이 방치돼 있다. 그래도 올해는 나아진 편이다. 학생들이 나름대로 쓰레기를 모아 한편에 쌓아두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나마 모아둔 쓰레기더미도 제자리를 찾지 못해 잔디밭 한구석에 방치돼있다. 이처럼 즐거운 축제 이면에는 항상 쓰레기가 발생하고, 뒷정리는 항상 청소노동자들의 일이다.

청소노동자들은 대체로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 청소노동자는 “어차피 우리 일이나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이 더 힘들거나 하지는 않다” 말했다. 그는 “올해는 학생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작년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야간에는 청소가 어려워 쓰레기를 정리에 더 신경써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다른 청소노동자는 “전단지 때문에 쓰레기가 늘고, 오토바이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주변 상인들을 행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소음 문제’다. 업무 공간인 동시에 대학원 강의 장소인 ‘본관’부터 ‘중앙도서관’ 그리고 ‘생활과학대학’까지 본관의 소음 피해를 입는다. 대체로 대학교 고유의 문화니 ‘이해한다’는 의견이지만, 문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고시준비생들이 소음이 시작될 점심시간에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외부인들로 인한 소음도 적지 않다”며 “야유회 오신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등으로 인해 공부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즐거운 문화지만, 소음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본관놀이’를 하는 학생들의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학생들은 배달을 통해 치킨, 중화요리 등을 주문해 먹는다. 이 때문에 ‘본관놀이’ 기간에는 스쿠터가 정문과 본관을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급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배달부’들은 빠른 속도로 운전한다. 교내 도로에서 이런 모습은 보행자



본관 앞 마당을 찾는 인파가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다

의 안전을 위협한다. 또한 음주로 인한 학생들의 돌발행동도 위험을 야기한다. 본관 앞 분수대에 들어가는 행동은 특히 위험할 수 있다. 분수대 안쪽으로 전기 설비가 있어 감전이 우려되며, 노즐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팀 김태우 직원은 “본부에서 통제하고 있지만 여러 안전 문

제가 유발될 수 있으니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이 같이 ‘본관놀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관 분수대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보안업체 ‘캡스’의 직원들이다. 분수대에 뛰어드는 행동, 소음을 유발하는 배달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본관놀이는 잠시 자취를 감춘다. IMF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대학생들이 본관에 모여 노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학생들 스스로 부모님께 죄송스런 마음에 학업에 열중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공허한 본관만이 남아있었고 이러한 냉기는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야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다.

2010년 전후로 학생들은 다시 본관 앞마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본관놀이’라는 용어가 정착된 것도 이때때의 일이다. 본관은 다시 활발한 놀이공간으로 돌아왔다. 첨단 문명에 둘러 싸여 낭만이라고는 모르는 세대라지만, 여전히 본관 앞 잔디밭에 모여 통기타를 치고, 짜장면을 시켜먹는 모습은 7,80년대의 낭만적이던 풍경과 다를 바 없다.

본관 건립 50여년, 본관 앞의 풍경은 시대가 바뀌어가며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본관놀이’는 과거와 현재의 학생문화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본관놀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까지 그랬듯 본관 앞마당을 채우는 학생들의 문화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대학생활의 좋은 추억으로 남길 기대한다.

부들의 호객 행위, 구성원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운전. ‘캡스’ 직원들의 주 업무는 바로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본관놀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캡스’ 직원들은 외주업체지만 ‘본관놀이’ 시기 등 대학본부의 요청에 따라 교내에 배치된다. 요즘엔 하루 6시간 씩 교대근무를 선다. ‘캡스’ 직원 조관우 씨는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근무 중”이라며 “올해도 몇 차례 돌발행동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조 씨가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배달부들과의 갈등’이 가장 난감하다. 미관을 해치고 청소가 어려워져 전단지 배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씨는 본관놀이에 대해 “대학생 때만 즐길 수 있는 놀이”라며 “학생들이 지금처럼만 즐겨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경희대의 문화로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에서도 ‘본관놀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학생자치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총학생회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다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분수대 입수 방지 팻말’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원)생을 찾습니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정신을 대내외에 드높인 경희인을 추천해주시시오. ‘웃는 사자’와 함께 활력과 패기가 넘치는 대학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개교 66주년 기념 2015 경희 ‘웃는 사자상’ 공모 2015 KH Laughing Lion Award

- 접수일시 : 2015년 4월 6일(월)~5월 4일(월)
- 대상 : 경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 부문 : 학술연구/사회공헌/문화예술 · 체육
- 시상인원 : 0 명
- 시상내역 : 상장 및 소정의 장학금 (단,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 추천방법 : 첨부한 공적서 작성 후 추천(본인 및 타인 추천) E-mail : pr@khu.ac.kr - 양식 : 경희웃는사자상 추천서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수여식 : 추후공지
- 문의 : 대외협력처 홍보실 02)961-0023~4